

‘선지식-도반-도량’ 3박자 척척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 기획을 마치며

이제 재가불자에게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와 봉사활동 등에 참가하는 것과 수행이 '따로'라고 여기는 불자도 드물다. 불자의 삶은 처음도 끝도 '수행'이란 인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의 밑바탕에는 도심수행도량의 역할이 크다. 이는 지난 1년 여간 전국 19곳의 도심수행도량을 탐방한 기자들의 결론이다. 찾아가는 곳마다 '선지식, 도반, 도량'의 3박자가 척척 맞아 떨어졌다. 스승은 지도하고, 도반은 서로를 경계하며 수행했다. 그런 스승과 도반들을 큰 흐름으로 안는 도량은 크고 작고 떠나 한결같은 정토였다.

뜨거운 수행열기 확인

도심수행도량의 특징은 단연 '자발적인 자기수행'이다. 이는 자기 삶의 변화를 이끄는 원천적인 힘을 수행에서 찾고 있다는 의미로, 치열한 내면의 고투를 거둬야 삶과 수행을 둘로 보지 않게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길상사 시민선원에서 5년째 참선 수행 중인 김해인(81·서울 대치동)씨는 "참선은 그간 가졌던 일상의 일음일이들을 뿌리 채 뽑아내는 힘을 줬다"며 "일상생활속의 잡념은 잡념대로 흘러 보내고 오직 화두와 하나됨을 경계해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선지식의 치밀한 수행지도와 점검도 현장에서 확인했다. '수행에는 출·제가 따로 없다'고 도심수행도량의 선지식들은 입을 모았다. 재가선과 50여 명에게 수시로 1:1 공부점검을 해주고 있는 공주 학림사 오등 시민선원 조실 대월 스님은 "단 1초라도 단도직입적으로 화두를 들고 밀어붙이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10년 안에는 깨달을 수 있다"며 재가불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수행도량에서 진하게 묻어내는 도반에도 열광할 수 있었다. 대구 보현사 보현선원에서는 30년 넘게 수행해온 구참자 10여명이 초심자들의 기초수행 상담을 맡고 있다. 수행상의 고충 등을 서로 나눔으로써 자극과 활력을 주고 있다. '선배는 이끄고, 후배는 따라 배우고 있는' 셈이다.

'수행이 곧 삶'이란 인식 확산

이 같은 도심수행도량의 수행 열기는 '기복 중심의 수행관 탈피'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히 절에 다니며



■ 어디를 찾아갔나?

본지 기자들이 탐방한 전국 도심수행도량은 총 19곳. 서울·경기 10곳, 부산 2곳, 대구·경북 3곳, 충청 2곳, 전라 2곳 등의 수행도량 문을 두들겼다. 서울 불광사 불광선원, 법수선원, 부산 새말귀선원, 대구 비로암 보광시민선원,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 공주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등의 수행현장을 찾아 재가불자들 체험담을 들었다.

수행법 선정은, '재가불자 3명 중 2명이 참선을 가장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조계종 포교원의 '신도 수행 실태와 의식에 관한 설문' 결과에 따라, 대구 보현사 보현선원 등 12곳의 상설참선수행도량을 중심으로 방문했다. 이와 함께 영불도량은 고양 문수수법회 등 3곳, 간경·사경은 대구 영남불교대 경산도량 등 2곳, 위빠사나계통은 광주 마하연 선원 등 2곳을 찾았다.

불공을 올리는 일로 만족하거나 책으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식불교'를 넘어 자기수행을 위한 '실질'에 눈을 뜨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만큼 재가불자들의 지적 수준이 향상됐다는 뜻이다.

6년째 고양 문수수법회에서 '회향염불(回聽念佛)수행'을 실천해온 최향순(51·서울 진관동)씨는 "내가 말하는 독경과 염불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써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회향염불법을 알게 되면서, 삶 자체가 그대로 수행임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생한 수행체험을 통한 지도자들의 수행지도도 주요 원인이다. 위빠사나 수행자인 근본불교 상가 서울 반나라마의 지도법사 붓다바라 스님은 일상 언어로 수행체험을 풀어내고 있어, 수행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님은 수행의 최대 장애인 망상과 번뇌의 실체에 대해 "기억의 무게"와 "삶의 흔적"에 구속될 것인가, 해방될 것인가"라 묻고, 20년간의 간화선 수행체험을 중심으로 수행자들의 공부를 돕고 있다.

도심수행도량 활성화 방안은?

도심수행도량 현장에서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재가불자들이 전국의 수행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 즉 '집 가까운 곳에서 수행'을 하고 싶지만,

기복 탈피 생활속 수행 정착 수행종합정보센터 구축해야

어디에 수행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전국의 수행처를 제대로 조사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조계종이 지난 2003년 참선, 간경, 염불 등 10대 수행법별로 수행단체 현황을 조사한 <불자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보고서>가 있지만, 이 보고서는 '어떤 수행단체가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지'만을 다루고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는 있지만, 초심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주지 인근 수행처 안내·단계별 수행프로그램 여부 등의 '맞춤형' 수행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셈이다.

때문에 불교수행 전문가들은 '수행 종합정보 센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 단위로 수행도량을 일제 조사해, 재가자들에게 자세한 수행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참가자 근거리·수행법 단계별 프로그램의 여부 △프로그램 진행 일정(주말인지 한 달에 한번인지) △상주하는 지도자 수 △수행처 시설 규모 △프로그램 평균 참가자 현황 △지속적인 참가가 이뤄지는지 등의 조사항목을 포함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각 수행법을 연령대별·직업별·계층별로 세분화해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고명석 연구과장은 "수행법별로 전국적인 시장조사를 범종단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행의 수요자인 재가불자들에게 폭넓은 수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8> 양두구육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고기를 쇼 윈도 우에 걸어놓고서 실질적으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말이다. 한우라고 써붙여 놓고 수입외고기를 파는 것도 이와 별로 다를 바 없다. 명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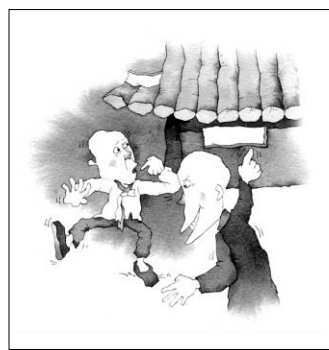
석두회천(石頭希遷:700~790)선사는 진금포(眞金鋪)를 표방했고 마조(馬祖道一:709~788)선사는 잡화포(雜貨鋪)라고 남들이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순금만을 파는 개인인 순금제점하고 고고한 선종을 지향하는 진금포인 호남 평보다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편을 갖추고 있다는 잡화포인 강서지방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다.

그러나 보니 금은 구석지로 밀려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예 진열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어쩌다가 금을 찾는 사람이 와도 잡화를 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그 가게들의 공통점이라고 해봐도

하는 '00가게'라고 불릴 수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속의 변화였다. '우리 회사만이 갖고있는 우리다운'이라는 근본기조를 소중히 지켜가려고 애써온 것이 장수비결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시대에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시대가 나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다.

해동땅의 오래된 가게들은 '선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주인은 가게를 찾은 종도들이 선종이라는 금을 찾는 사람보다도 잡화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았도 그럴 법치였다. 게다가 금보다는 잡화가 잘 팔리니 잡화포에만 신경을 썼다.

그러다 보니 금은 구석지로 밀려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예 진열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어쩌다가 금을 찾는 사람이 와도 잡화를 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그 가게들의 공통점이라고 해봐도



선종이라는 정체성 걸맞게 사상과 교육체계 확립, 교판·율장 정비해야

니었다. <전등록>11권에서 양산해적(803~887)선사는 진금포와 잡화포를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어떤 사람이 갖가지 물건과 금과 보배로 하나의 가게를 꾸며 장사를 한다는 것은 오는 이들의 경중에 따르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석두는 진금포요, 나(양산)는 잡화포라 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취풍을 찾아라도 나는 주고, 어떤 사람이 순금을 찾아라도 나는 준다."

취풍을 줄 때 주더라도 순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취풍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순금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금방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얼마 전 <일본의 오래된 가게(老舖)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다. 그 '노포(老舖)'라는 말을 대하면서 진금포 잡화포를 떠올렸다. 그 '오래된 가게'의 공통점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대신 자기변화를 게을리않는 마조의 잡화포를 떠올렸다. 왜냐하면 그 가게들의 변

계종 본점에 주인승적과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는 '형식적' 사실 뿐이다.

이건 오래된 가게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코 오래 갈 수도 없거나 설사 오래 간다 한들 무슨 존재 가치가 있었겠는가. 지금 같은 '잡종'으로서 선종을 표방한다면 이는 '양두구육'이다. 양두구육을 진금포 잡화포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수행 명 대중이 수백 곳 선원에서 하루에 수십 시간 앉아 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선종의 정체성에 걸맞은 사상과 교육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명자(名字)와 일치하는 교판(敎判)과 율장의 정비가 뒤따르고 아울러 종도들의 가치관을 함께 바꾸어야만 가능한 지난한 작업이다. 만약 '통불교'가 실질적인 종지(宗旨)라 생각한다면 모두 '계급장 떼고' 허심탄회하게 제대로 한 판 있는대로 솔직하게 논의해서 차라리 가계(家系)를 바꾸는 편이 암암적일 것 같다.

■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불교의식(범음·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어렵히 접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4기)
- 교육방법 : (1) 출강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 (2) 통선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① 송 주 편 (도량석·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 (삼보통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 ④ 재의식편 (천도제·49제·시다림·기계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화엄시식·상용영만·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6년 1월 5일(목) 오후 3시(목탁필기구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범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 안되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055)241-0374
 휴대폰: 011-833-0374
 ※남여 행사 모집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명이 바뀝니다 명당복합



◆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화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청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허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음,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 이것이 첫번째이다. 명당복합(051)865-9933

전도제 49제와 결연인 첫번째 전회주이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첫방전명 명당복합은 각 사찰, 암자, 절학관에만 있습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복기막힌 복이들과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명이 바뀝니다 명당복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청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화하여 허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계나 삼계에 시달린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만구 노력해도 안되는분. 사주가 인종운인
 분들은 명당복합방 기묘처방을 해보십시오.